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7.10 / NO.14



충분합니다, 그저 이만큼의 시간

단편
독립영화
스페셜

independent
short film
special

단편영화를 보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공간은 다양할 것입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구색을 갖춘 극장일 수도 있고 이동식 스피커와 노트북에 연결된 저사양의 빔프로젝터를 쓰는 상영 공간일 수도, 집이나 카페, 사무실,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DCP일 수도 필름일 수도 용량을 낮춘 스크린일 수도 온라인 스트리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떠한가요, 금방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반대로 길이가 짧기에 매 씬을 긴장 상태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널따란 가능성과 그 잠깐의 시간이 정식 개봉해서 극장 상영을 하는 장편과는 또 다른 제약을 만들지라도,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러닝타임 동안 화면이 진동하고 음파가 머리를 뚫고 울리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편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이 아닐까 합니다.

NOW에서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이들은 누구보다 많은 단편을 누구보다 심사숙고해 관람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덧 11회를 맞은 대단한 단편영화제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김신형 프로그래머는 언제고 극장이라는 랜드마크에서 손꼽히는 친구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렌지필름 민지연 대표는 영화를 만들고 위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영 기획자로서 고민을 이어갑니다. 자체휴강시네마의 박래경 대표는 극장에서 단편영화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일상적이면서도 소중할 수 있는지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필름다빈의 백다빈 대표는 진심을 담아 만든 단편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이 네 사람이 추천한 영화의 관객이자 메신저가 된 인디즈의 오밀조밀한 글도 읽는 맛이 남다른니다. 이들이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만큼 단편영화를 관람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또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영화 말고 너’에서는 <만일의 세계>가 어떻게 아주 개인적인 감정과 기억의 영역까지 파고들었는지 솔직한 회고를 듣습니다. 마치 고백 같은 글을 읽고 있다면 절로 이 영화의 일렁이는 고요함이랄지 잔잔한 요동침이 떠오릅니다.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에서 토끼리가 왜 단편영화의 묘미로 ‘열심히 사는 맛’을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웃음기 어린 그덕임이 절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영화로 채운 14호의 알맹이이자 고명으로 든든한 글과 만화입니다.

서울독립영화제도 공모를 마감하고 관객 분들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할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총 1,23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중 단편은 1,098편에 달합니다. 올해는 어떤 단편이 무슨 마법을 부리게 될까요?

김송요

03

SPECIAL

04

대단한 단편영화제 & KT&G 상상마당 시네마

- 김신형 프로그래머

08

오렌지필름 - 민지연 대표

12

자체휴강시네마 - 박래경 대표

16

필름다빈 - 백다빈 대표

20

단편영화 보기 좋은 날

인터뷰이 4명이 추천한 독립 단편영화 리뷰

26

다른 영화 말고 너 <만일의 세계> 임대형

27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INDEPENDENT SHORT FILMS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이들 중 단편영화에 특히 애뜻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짧다고 해서 마음이 덜한 게 아니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또 꺼내놓지 않더라도, 단편영화를 보는 묘미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번 호, 네 명의 인터뷰이가 전해주는 말들 속에서 충분한 공감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가을 NOW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단편영화를 ‘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추려 상영을 기획하고 관객을 모아 객석으로 이끌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 KT&G 상상마당 시네마의 김신형 프로그래머, 오렌지필름 민지연 대표, 자체휴강시네마 박래경 대표, 필름다빈 백다빈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각자의 방향과 태도로 운용하는 이들에게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단편영화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거듭 발견하면서, 추워지는 계절 극장에 웅기종기 모여들어 공기를 덥힐 단편영화를 떠올립니다. 이토록 짧지만 충분한 시간 벌어질 영화적 시간을 상상합니다.

한결같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단한 단편영화제 & KT&G 상상마당 시네마 김신형 프로그래머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T&G 상상마당 시네마(이하 상상마당 시네마). 극장과 동시에 그 문을 열었던 대단한 단편영화제도 성황리에 열린 번째 막을 내렸다. 그 ‘대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상마당 시네마 김신형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상상마당 시네마도, 대단한 단편영화제도 10년여 시간 동안 자기 색을 꾸준히 만들며 그만큼 자라온 데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 좋아서 한 것들은 자국을 남긴다. 좋아하는 마음이 역사가 된다.

제11회 대단한 단편영화제가 폐막했다. 대단한 단편영화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폐막 소회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단편영화제는 상상마당 시네마 개관하는 날 시작했던 영화제다. 특징이라면 20분 미만 부분경쟁 단편영화제라는 것이다. 경쟁부문은 4회부터 도입했다. 상상마당 시네마가 10주년이 되는 올해 영화제도 11회가 됐다. 이번 개막식은 개관한 날과 똑같이 진행되어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폐막까지 잘 마쳤다. 올해 작품작도 가장 많았던 데다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했다. 잘 끝나서 좋다.

KT&G 금관상부터 대단한 배우상, 포스터상까지 <노이즈>가 받았다. 영화 <노이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선 심사 때 1분도 안 걸렸다. 세 분이 동시에 가장 좋았던 영화로 그 작품을 뽑아서 KT&G금관상이 빨리 정해졌다. 여자 주인공의 일상을 쫓는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만듦새, 배우 연기의 진정성에 심사위원 모두 동의했다. 영화 학교가 아니라 한겨레문화센터를 수료하면서 찍은 작품이다. 주연을 맡은 민소정 배우도 영화 연기는 처음이다. 열악한 환경, 제한된 상황에서 찍은 작품인데 영화 속에 독심이 있었던 거다. 그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몇 년째 하고 있나?

9년 됐다. 1회 때는 개막식 놀러 갔다.(웃음) 말은 분야는 달랐지만 2회 때부터는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2회부터는 봐왔던 셈이다.

그렇다면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꾸려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매년 기억에 남지만, 윤가은 감독이 제5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때 <손님>이란 작품으로 첫 수상을 했다. 감독상, 배우상, 관객상, 포스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해여서 그 포스터를 들고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 갔고, 대상을 받았다. 정말 기뻐다. 그 다음 해에는 윤가은 감독이 <콩나물>로 영화제에 다시 왔다. 김수안 배우도 상을 받았는데, 당시 본선심사위원이었던 연상호 감독이 보고 <부산행>에 캐스팅을 했다. 시상식에서 윤가은 감독이 엄청 울었는데 김수안 배우가 ‘왜 울어요, 감독님?’ 이러면서 타박했던 기억도 난다.(웃음) 그렇게 작년 예선 심사위원까지 같이 했으니 윤가은 감독과는 함께 해온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 참 좋다.

수많은 영화제가 열리고 또 새로 생긴다. 단편영화만을 다루는 대단한 단편영화제가 가지는 특별함은 무엇일까?

일단 극장이 주최하는 단편영화제로는 거의 유일하다. 보통 영화제가 기획 단체가 극장을 대관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대단한 단편영화제는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직접 주최하는 영화제라 상상마당 시네마를 포함해서 상상마당 전체가 갖고 있는 독립문화를 지원하고 소개하는 취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대단한 단편영화제만의 특징이 뭔데?’라고 물으신다면,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 사람의 장편영화를 빨리 보고 싶다’고 생각하기까지의 중간 과정으로서 준비하지는 않는다. 그저 단편영화로서 재미가 있다면 되는 거다. 작년엔 <죽구왕>을 개봉한 우문기 감독이 금관상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장편영화 찍은 분들이 단편영화를 찍어서 출품해도 좋고, 올해처럼 처음 연출을 한 신인 감독의 작품이 좋다면 그 분을 지지하는 거다. 단편영화 그 자체만을 본다. 감독 장편 입봉을 시켜야겠다는 눈으로 단편을 보는 영화제들도 있다. 그런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영화제들이 이미 있으니 우리는 단편 자체로 재미있는 것들을 보려고 한다.

대단한 단편영화제 하면 ‘대단한 제목상’이나 포스터 협업 프로젝트 등 젊은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상상마당 시네마가 가진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극장에서 하는 영화제니까 우리 극장 관객들을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다.

경쟁부문에 ‘20분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도 흥미롭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 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아마 4회부터 시작했을 거다. 어렵듯이 기억하기로는 단편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찾겠다는 취지로 짧은 시간제한을 뒀던 게 아니었나 한다.

프로그래머로서 예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영화를 볼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를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심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기 주장대로만 우길 수 없으니까. 작품이 심사위원을 통해 선정되어 관객과 만나게 되는 만큼 심사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영화제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단한 디자인 프로젝트

지금 가장 주목할만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단한 디자인 프로젝트는 <제11회 대단한 단편영화제>의 본선 진출작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 작업입니다. 단편 경쟁 색선에 오른 작품의 감독과 디자이너의 1:1 매칭을 통해 영화계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감독들의 포스터를 제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단순한 재능 기부를 떠나 디자이너에게는 새로운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독에게는 영화 제작뿐만이 아닌 마케팅 과정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참여 작품 (가나다 순)

가해자 김현일·빛나는 김병훈 | 내 차례 김나경·기마늘 | 노이즈 임지선·스푸트닉 이관용 | 드리 김민정·문진희 | 등에 김경래·블루샤크
러면 맛있게 끓이는 법 유승엽·이관정 | 마리아들 배채운·권세나 | 멧은 날 이홍래·황미옥 | 물으로 나온 물고기 표국청·송철운
방구의 무게 박단비·스푸트닉 연다슬 | 변성기 박준호·햇빛스튜디오 | 빅 피쉬 박재범, 김정석·ROUTE 정유섭 | 스포주의 김경운·오디너리피플
시체줄는 소녀 천주영·임은비 | 시험 후 김나영·무궁화 | 쓸 데 없는 의문 황윤정·한빛 | 암 유슬지, 이지운·스푸트닉 백정민
어제의 밤새 김백진·131watt | 영화, 관 이로경·송지현 | 오! 갈릴레오 김의경, 김희경, 신연주·윤지영 | 오늘의 자리 허지은·정재열
잠들 이승환·mozza | 조망이 가능한 등산로 김재현·하승우 | 종달리 한동혁·피그말리온 | 한일전 김주일·땀짓의 세상 오세범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나?

매년 비슷하다. 우리 극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주로 함께한다. 작년에 함께한 윤가는 감독의 경우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손님>, <콩나물>로 수상해 인연이 이어지다가 <우리들>도 우리 극장에서 개봉했다. 올해 이현주 감독은 4회 경쟁부문이 처음 생겼을 때 <Distance>로 출품을 했고, <바캉스>로 초청된 적이 있다. 작년 상상마당 시네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애담>의 감독이기도 하다. 조현철 감독 겸 배우는 경쟁부문이 생긴 4회 때 첫 KT&G금관상을 연출작 <척추측만>으로 수상했다. 그 뒤로도 꾸준히 단편을 우리 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지금 이 시점 우리 극장에서 특별전을 할 수 있을, 우리 극장과 공유한 역사가 있는 이들을 위촉하려 했다.

매해 제작되는 단편영화를 보며 느끼는 최근 한국 단편영화의 흐름 같은 것이 있을까.

유행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어떤 해에는 홍상수 감독 작품 같은 스타일이 많다. 올해는 사회 문제를 다루되,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다. 여성, 교육 등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를 유연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출품작 중에도 많았고, 상영작으로도 여럿 선정됐다.

단편영화는 영화제 밖에서 보기 어렵다. 상상마당 시네마에서는 ‘단편 상극장’을 오래 진행하며 단편 창구를 만들고자 시도한 것으로 안다. 다른 강구책이 있을까.

10년째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관객을 모으기 힘들었다. 관객층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단편 상극장’에 갑자기 관객이 많아졌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배우 특별전 기획이 성공한 때부터인 것 같다.

박정민, 류혜영, 김태리, 변요한 등 독립영화로 출발했던 배우들의 작품을 묶어서 상영했다. 그때 찾아주신 관객 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 이 배우의 단편이 재미있으면 ‘또 다른 단편을 봐볼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10명 중에 3, 4명은 계속 단편영화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분들이 대단한 단편영화제, 극장에서 개봉하는 다른 영화에까지 발길을 이어 주시는 흐름을 봤다.

예전에는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기가 힘들었다. 단편은 한정적인데 매달 테마를 구성하는 것도 일이고.... 그런데 관객도 안 오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웃음) 이젠 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 ‘이번엔 뭐하지?’, ‘뭐하면 많이 보러 오실까?’ 하면서 신나게 준비하게 된다.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극장이자 문화공간이 단편영화제를 주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대단하다.(웃음) 돈을 벌 수 없고 지원 성격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화제인 만큼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연출, 스태프, 배우 등 창작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데 중점을 둔다. 한편 ‘단편영화 어려워요.’, ‘어려운 영화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계속 마주한다. 그런 낯설을 대단한 단편영화제와 단편 상극장을 통해 조금씩 없애고, 관객과 단편영화 사이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다.

‘대단한 단편영화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지금 딱 고민하는 중이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아직 고민하는 단계다. 확정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울 독립영화제가 하는 것처럼 제작 지원 형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영하고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찾아보려 한다. 제12회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기대하시라.

한국 독립단편영화에 전하고 싶은 마음 혹은 응원이 있다면.

그냥 같이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다.(웃음) 극장에 있기 때문에 영화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다시 만나게 된다. 앞서 말한 이현주, 윤가은, 우문기 감독 등이 그렇다. 이런 일로 만났다가 또 다른 일로 만났다가, 어떻게든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상상마당 시네마는 계속 여기 있다. 멋진 분들과 꾸준히 봤으면 좋겠다.

상상마당 시네마에만 10년 가까이 있다.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랜 시간 영화관을 지키는 기분은 어떤지 궁금하다.

아직도 재밌다. 친구들이 ‘네가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한다. 내가 생각보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보다.(웃음) 어쩌다 보니 9년이란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극장이 너무나 좋다. 지금처럼 바쁠 땐 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말에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것 같다! 극장은 365일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있어도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무슨 일은 없나?’, ‘관객들은 많이 왔나?’ 하는 생각을 놓을 수 없는 거다. 어쨌든 이 공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깐.

영화 관련 일도 다양하다. 영화제도 있고 수입, 배급, 제작도 있고. 상상마당 시네마는 극장사업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극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상반기, 하반기 1편씩 독립영화 개봉을 한다. 이 밖에도 시네랩을 통한 후반작업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영화사업팀장으로 세 가지 파트를 총괄하고 있지만, 극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극장에 대한 애정이 좀 더 크긴 하다. 제작, 배급,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극장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것 같다. 극장을 베이스로 두면 그 모든 일을 섞을 수 있다. 마케팅은 당연히 필요하고, 배급하는 영화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 공간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위에 극장 일을 추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짧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잘 끝냈으니 끝나자마자 시작한 개관 10주년 영화제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관객이 선정한 영화 10편을 매일 상영하는 콘셉트다. 9월 말에 배급하는 <뽀빠지> 개봉도 잘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다. 다른 영화사들도 마찬가지로 일 있는데, 배급을 할 때 ‘이 영화 잘 될 것 같다’란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다. 적어도 우리 팀에겐 그렇다. 많은 분들에게 이 마음이 닿을 수 있게 노력할 거다.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진행하는 씨네아이콘 배우 기획전을 준비할 것 같다. 상상마당 시네마 영화사업팀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인 극장, 배급, 시네랩 등 모든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 찾으려 한다.

인터뷰 / 이채현

사진 / 김지은



영화를 통한 경험의 가치를 믿는다. ‘까봐야 안다’

오렌지필름
민지연 대표



오롯이 영화를 본다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경험의 가치. 그리고 창작자와 관객의 행복한 경험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동할 단편들이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공간으로 찾아온다. 까봐야 안다는 배짱으로 기획부터 프로그래밍, 장소선정과 홍보까지 상영회의 처음과 끝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전격 1인 시스템의 오렌지필름 민지연 대표를 만나보았다.

오렌지필름은 어떤 곳인가? 이름의 뜻도 궁금하다.

매달 하나의 주제로 상영회를 기획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 선정부터 극장 컨택과 홍보 등 상영회를 통해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일을 총괄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개인적으로 쓰는 ID에 꼭 'orange'가 들어갈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오렌지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오렌지필름이 되었다.(웃음) 슬로건은 '까봐야 안다. 오렌지필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배짱 있게 꾸준히 하고 싶단 마음으로 지었다.

최근에 [세 개의 문]이라는 문혜인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관객이 찾아줘 정말 감사하고 뿌듯했다. 작품을 통해 문혜인 배우를 만나게 됐는데, 매 작품마다 받는 감동이 커서 꼭 상영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난봄부터 기획한 상영회가 좋은 배우와 좋은 작품으로 꾸려져 영광이다. 문혜인 배우는 앞으로 더 크고 멋지게 빛날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처음 단편영화 상영회를 기획한 계기와 그 과정이 궁금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Roxie Theater(이하 락시)에서 인턴을 할 때 프로그램 매머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당시 강진아 감독의 <환상 속의 그대> 연출부를 하면서 연이 닿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센터에서 2004~2013년도 졸업 작품을 받게 됐고, 한국의 지금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편 영화 다섯 편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당시 락시에서는 한국영화를 상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진행하는 한국영화 상영회가 다음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다. 상영 당일까지도 티켓이 많이 팔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막상 상영회 직전에 줄 서서 들어오는 관객들을 보고 감동이 밀려왔다. 결과는 상영관을 가득 채운 만석이었고, 동료들이 고생했다며 안아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 펄펄 눈물을 흘렸다.(웃음) 상영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게 오렌지필름의 첫 시작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어떻게 가게 됐는가.

전공은 국문학인데, 학교 다니면서 영화에 관심이 생겨 인디다큐페스티벌 자원활동부터 시작해 <환상속의 그대> 연출부 등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게 됐다. 출발점이 된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영화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때 함께했던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7년째 만나오고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 목표가 두 가지 있었다. 영화사에서 일하고 싶단 것과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가지 모두를 이뤘다. 그게 지금까지 단편영화 상영회를 계속 하게 되는 힘인 것 같다.



문혜인 배우전
<세 개의 문> 포스터와
2017년 9월 23일 남국재전에서
진행된 상영회 모습
(c) 오렌지필름

상영회 진행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분업하는 사람은 없는가.

상영회의 진행과 책임은 모두 혼자 맡고 있지만 감독과 배우, 늘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주는 디자이너 등 주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여러모로 완벽히 하고 싶은 마음에 극장 관계자 분들을 귀찮게 하는 편인데,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상영회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일단 DB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영화제도 자주 가고 온라인에서도 단편영화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러다 좋은 작품을 마주하면 어떻게 묶어서 상영할지 기획을 시작한다. 이후에는 극장과 상영회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되면 배급사를 통해 상영본을 수급한다. 이어서 GV일정을 확인하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 모든 과정 중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상영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

거창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을 건드리는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남아 영화를 볼 때도 그 기준이 내면에 있다. 이학주 배우전은 팬들의 요청으로 시작했고, 박정민 배우전은 좋아하는 배우라 사심영화제로 진행했다.(웃음) 문혜인 배우전은 작품을 먼저 만나고 기획을 하게 됐다. 배우전 기획은 작품을 선정하기도, 모객을 하기도 쉽다. 그러나 작품에 함께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을 배려할 수 없다면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상 배우전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상영회가 있다면.

이학주 배우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감독과 배우의 부모님도 참석했고, 상영회의 분위기도 따뜻해서 기획자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찼다. 7월에 했던 [여름영화] 상영회도 기억에 남는다. 포스터를 정성들여 만들고, 뭔가 더 필요하단 생각에 맥주회사 협찬도 받는 등 많은 공을 들였는데 상영회 당일 객석이 가득 찼다. 확실히 공들여 준비할수록 상영회가 더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영회를 진행하면서 뿌듯한 순간도 많았을 것 같다.

오오극장에서 상영회를 할 때 승합차를 렌트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영화를 보러 왔었다. 감독이 꿈인 학생이 오렌지필름 상영회 홍보 글을 보고 선생님을 설득해 오게 된 것이었다. 상영회를 기획하고 오오극장에 가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마음의 짐이 떨어졌다. 감동을 받은 감독이 영화감독이 꿈인 이들에게 건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줬는데, 누군가 꿈꾸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상영회 때마다 찾아주어 참 반가웠다.

상영회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오렌지필름의 상영회를 통해 내가 가져가는 금전적인 이익은 전혀 없다. 창작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렌지필름 상영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티켓수익은 때와 장소마다 다르지만 모두 극장과 감독님께 드리고 있다. 영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오렌지필름 상영회가 진행되는 공간에 대해 말해 달라.

공간마다의 매력은 확실히 있다. 먼저 KU시네마테크는 영화관으로서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다.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를 좋은 조건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철학이 있는 곳인데, 그런 신념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강약을 두지 않고 열심히 임해주는 스태프 분들 덕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오극장은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오오극장을 중심으로 많은 기획전과 상영회, 영화제 등이 진행되면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다. 오오극장에서 상영회를 직접 봤을 때 통찰력 있는 관객 분들도 많이 만났고, 화기애애함을 느꼈다. 프로그램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남국재건은 영화를 상영하는 전문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운영하는 분들이 영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고 이해도도 높다. 상영 후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공간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남국재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영회를 꼭 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뉴욕의 메트로그래프라는 극장에서 상영을 해보고 싶다. 미국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활성화 이후 규모가 작은 영화관들이 문을 닫는 등 극장 상영이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메트로그래프는 오프라인에서 겪는 문화 경험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진, 패션디자이너가 만든 극장이다. 고전부터 철학적인 작품까지 엄선된 프로그래밍으로 영화가 상영된다. 영화로써 사람들에게 함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언젠가 그곳에서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상영을 해보고 싶다.

단편영화만을 기획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처음 라식에서 단편을 기획하여 상영한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장단편의 구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단편영화를 알면 알수록 더욱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느낌이 들어 단편영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

인상 깊은 단편영화가 있었다면.

<환상속의 그대>의 시작이 된 단편, 강진아 감독의 <백년해로외전>이다. 처음 본격적으로 영화 일을 시작할 때 <백년해로외전>을 봤다.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막연한 믿음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무지 좋았다. 단편을 인상 깊게 보고 장편화한다는 소식을 들어 <환상속의 그대> 연출부 면접시험에 지원해 참여하게 되었다. 보조 출연도 해보고 세트, 조명 설치에 글도 쓰는 등 잘하지는 못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2017 오렌지필름 강진아 감독展

네 쌍둥이 자살
구천리 마을잔치
백년해로 외전
환상 속의 그대

진아의 기억

오렌지필름

10월

21일 KJ사네마테크 강진아 감독	22일 아리랑시네센터 강진아 감독	28일 오오극장 강진아 감독	31일 신영극장 강진아 감독
--------------------------	--------------------------	-----------------------	-----------------------

자세한 내용은 Instagram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영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theorangefilm.com
@theorangefilm

*이웃집, 74명만이 관람합니다.

요즘에는 동영상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단편영화를 만나기가 쉬워졌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단편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집중도의 차이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공간을 찾아가는 것부터 누구와 함께 관람하는지, 상영 후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 모든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관객들은 각자의 기억을 갖고 돌아가게 된다. 단편영화는 길이는 짧지만 극장에서 함께 경험함으로써 더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혜인 배우전 이후 준비하는 상영회가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10월에는 강진아 감독의 작품들을 상영한다. 이미 모든 기획이 끝났고 상영일정도 정해졌다. 강진아 감독님 덕분에 영화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이 많아 꼭 스크린으로 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서울 이외에 대구 오오극장에 이어 강릉의 신영극장에서 처음 상영하게 됐다. 더 많은 곳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오렌지필름의 앞으로가 기대된다. 목표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다. 하다 보니 더 잘 하고 싶고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게 됐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관객이 좋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방향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래 이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오랜 시간 변치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고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긴 시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배철수 DJ처럼 첫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오렌지필름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싶다.

인터뷰 / 김도란

사진 / 김지은

장소협조 / 남국재견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영화인에게 상영의 기회를

자체휴강시네마 박래경 대표



단편영화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관객들에게는 부담 없는 러닝타임, 신예 배우 발굴의 재미 등 여러 의미가 작용하는 듯하다. 이 열기에 힘입어 영화제와 기획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단편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겨울, 신림에 문을 연 단편영화 상영관 ‘자체휴강시네마’를 찾았다. 단골 관객들의 계속되는 방문으로 인터뷰가 중간중간 끊겼으나 전혀 못마땅하지 않았던 시간.

극장판, 일시정지시네마 등 앞서 문을 연 비슷한 상영관이 몇 군데 있다. 올해 초, 새로운 단편영화관이 생겼다는 소식에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언제 문을 열었는지, 어떻게 작은 상영관을 열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자체휴강시네마를 시작한 건 2017년 2월이고 이제 한 반 년 됐다. 영화 전공은 아니었지만 영화를 좋아했다. 이야기를 좋아한다. 문예창작학과 여서 원래 소설을 쓰다가 시나리오로 건너갔다. 그러다 한겨레 영화제작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 거기서 단편영화를 접했는데 좋은 게 너무 많더라.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 못 가면 감독의 하드디스크에 처박혀 있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끝날 영화들이 아닌데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공간이 하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속된 말로 ‘빠쳐서.’(웃음)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진 않았다.

단편영화는 개인 작업인 경우도 많지만 졸업작품이 대부분이다. 다들 단편영화로 시작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영화다. 일반 관객을 만날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다. 반 년 동안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공간이 지하이다 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지만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다. 전에 이 공간에 있던 술집이 문을 닫은 지 한참이라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물이 새고 전선은 쥐가 다 파먹어서 남아있는 게 없었다. 도저히 혼자 공사할 수가 없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 벽 세우기, 방음 등 큼직한 것만 외부에 맡겨 수습하고 그 후를 챙겼다. PC로 상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프로젝터와 사운드 기기는 좋은 걸로 구비했다. 세세하게 물건을 들이는 일과 작은 공사는 직접 했다. 한 달 반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당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 조교였다. 거기다 공사까지 진행한 거다. 너무 바빠고 정신 없이 보내서 그때의 기억이 잘 없다. 다행히 공사를 맡아주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 알고 보니 그중 한 분이 배우였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실은 그때까지도 계속 할까 말까 싶었다. 나에게서는 큰 돈이 들어간 일이라서 지금이라도 접으면 반은 가져갈 텐데 고민이 됐다. 그런데 그 배우 분이 일단 해보라고 했다. 선배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신림에 문을 연 이유가 궁금하다.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집처럼 편하게 꾸며놓고 내 작업실 겸하는 곳을 만들 계획이었다. 가볍게 보고 나설 수 있는 단편영화를 틀 거니까. 일단 대학가를 생각했다. ‘자체휴강시네마’라는 이름도 대학과 관련해 붙였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건국대, 홍익대 등 다 돌아다녔다. 학교 안에 극장이 있는 곳은 제외했다. 그렇게 빠고, 빠고 하다 보니 적당한 곳이 없었다. 접어야 하나 했다.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싶었다. 그러다 고시촌을 알아봤다. 여기서 서울대가 멀지 않다. 어떻게 보면 대학가인 거다. 마침 다 쓰러져가는 지하방이 하나 있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주변 가게 등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지하를 원했다. 괜찮다 싶어서 그날 바로 계약했다. 물론 다음에 고생은 했지만.(웃음) 공부하느라 힘든 고시생 분들이 많이 온다. 이 동네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서울대 입구나 신림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리가 애매하다. 걸어 가긴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긴 영화를 보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여긴 한 편 짧게 보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는 것 같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 잘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몇 년 버텨보고 싶다.

이 위치에서 단편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장점과 단점이라면?

장점은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라는 점. 단편영화를 혼자 보기에 최적화된 동네다. 친구와, 애인과 둘 이상이 함께라면 일반 영화관 가서 두 시간 앉아있는 게 좋지 않나. 혼자서는 짧게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 동네엔 학생, 고시생도 많지만 직장인도 많다.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다. 처음 공간을 만들 때는 대학생들 타겟으로 잡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을 넓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점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이 멀다 보니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올 수밖에 없다. 주차 문제가 심한 곳이라 자가용으로 오기도 어렵다. 단점일 뿐만 아니라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공간이 지하라서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건 좋지만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밖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낯설어한다.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 용기가 있으신 분이.(웃음)

‘자체휴강’이라는 이름이 재미있다.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앞서 말했듯 대학가에 만들려고 했으니 대학과 관련된 이름을 짓고 싶었다. 떠오르는 단어는 ‘공강’과 ‘휴강’이었다. 잠깐 짬 내서 쉬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폐강’까지 생각지만 너무 우울해 보여서 뺐다.(웃음) 처음엔 ‘공강상영관’을 떠올렸는데 이응(ㅇ)이 많이 들어가서 발음이 어렵더라. ‘휴강상영관’은 왠지 임팩트가 없어서 더 고민하다 지금의 ‘자체휴강시네마’가 되었다.

평균 관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오픈한 지 오래된 게 아니라 평균치를 내기 어렵다. 수시로 바뀌어서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잡힌다. 고시가 다가올 때마다 폭 떨어졌다가 끝나면 잠깐 올라가고 대학교 방학, 학기 중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방학이면 더 오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떨어지더라. 종강하면 다들 이 동네를 떠나간다. 이번 7-8월은 관객이 정말 없어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평균적으로 하루 열 명이면 많은 편이다. 참 종잡을 수가 없다.

주 관객층이 어떻게 되는지. 종일 혼자 극장을 지키다 보면 관객의 반응을 곧바로 세세하게 느낄 것 같다.

열 명이라 치면 다섯은 서울대생, 셋은 단편영화를 찾아서 온 시네필, 나머지는 지나가다 들어온 분들이다. 거의 단골 분들이다. 매달 바뀌는 상영작을 무조건 다 보고 가는 분들도 있다. 시험 공부 하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짬 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고맙다. 시험에 방해가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웃음)

처음 오면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몇 번 오다 보면 점점 편해지는 공간인 듯하다. 이제는 제집처럼 드나드는 분들이 꽤 있다. 내가 원하는 바다. 단편영화는 신기한 영화가 아니다. 그냥 영화다. 그렇게 인식을 바꾸는 게 최종 목표다. 아직은 단편이 장편의 하위 개념이라는 오해가 있다. 장편영화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 같은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장편영화도 좋아하지만 단편영화에 더 애정이 있다. 한 해 동안 만들어지는 영화의 절대적 숫자를 보면 단편영화가 훨씬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인상적이었던 관객과 그 에피소드를 듣고 싶다.

굉장히 우울해 보이던 관객이 한 분 기억난다.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 나올 거 같은 분이였다. 표정 변화가 없는, 검은 기운이 가득한 분이 들어와서 되게 긴장했다. 영화 평론가 아니면 고시 생활 오래 하신 분이겠구나 짐작했는데 후자인 것 같았다. 상영작을 설명 드려도 말 한마디 없고 손가락으로 볼 영화를 가리키기만 했다. 큰일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 근데 영화 시작하니 웃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다. 밖에서 상영관 안 소리가 들린다.(웃음) 혼자니까 편하게 보시더라. 좋으면서 씩씩했다. 이렇게 웃음이 많은 분이 밖에서는 그렇게도 우울해 보인다는 것이. 고시 생활이, 산다는 게 무겁구나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웃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묘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노부부 관객도 기억난다. 소년소녀 같은

분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은퇴 여행을 하고 계신다 했다. 꽃남방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졌다. 아직까지도 왜 고시촌까지 오셨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 많은 곳을 두고 왜 고시촌에 왔을까? 관악산 올라갔다 오셨나.(웃음) 아무튼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재미있게 보고 가셔서 기억에 남는다.

여러 매체에 소개된 바 있다. 효과, 변화를 체감하는지.

전혀 느낄 수 없다.(웃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오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자꾸 노출이 되는 포인트가 ‘고시촌’이다. 영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티켓 가격이 이천 원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둔다.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는 신경도 안 쓴다. 좋은 영화를 상영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공간인데 그쪽으로 신경 써주는 매체가 없다. 고시생만 오는 것도 아닌데, 역시 위치 때문에 그런 거 같다. 이해는 되니까 불쾌하진 않다.

단편영화의 매력이라면?

예전엔 잘 몰랐다. 그냥 영화 자체가 좋았다. 이 일을 하다 보니 단편영화의 매력이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배우와 소재 면에서 특히. 사람들이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아도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익숙한 배우가 나오고 익숙한 소재를 다루는 걸 좋아한다. 반면 단편영화는 궤가 다르게 흘러간다. 같은 주제라도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 도저히 장편영화는 덤빌 수 없는 걸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고 놀며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식이 좋다. 영화 작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영감을 계속 받는다. 그리고 익숙한 배우들이 아닌 낯선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느낌이 좋다. 특히 아역 배우들. 왜 이런 배우들이 TV 드라마에 안 나오나 싶다. 정말 좋은 배우들 보면 ‘저렇게 연기를 잘 하는데. 분명히 언젠가 큰 작품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 상상도 해보고. 다양한 배우들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건 단편영화가 아니고서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인 체제이니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매달 작품 선정 과정이 궁금하다.

한 달에 네 편에서 여섯 편을 상영한다. 다양하게 장르를 섞는 편이다. 관객이 액션을 원할 수도 있고 멜로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장르가 나에겐 최우선 기준이다. 그리고 작품성. 하지만 너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상정보를 확인해서 고려한다. 수상 이력이 많다는 건 공신력을 가졌다는 거니까. 작품을 골라 배급사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다. 이 근처에 사는 감독이 영화 보러 왔다가 사이가 가까워져 술자리에서 영화를 받은 경우도 있다. 단편영화 전문 배급사뿐만 아니라 대학교 안에 꾸려진 배급팀 쪽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작품을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꾸준히 영화를 공급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극장판, 일시정지시네마와 함께 기획 상영을 진행한 걸 봤다.

공모전 형식이었다. 출품된 작품들 중 몇 편을 선정하여 세 곳에서 상영을 진행했다. 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극장판과 일시정지시네마가 해오던 기획에 끼워주신 거다. 덕분에 상영을 잘 마쳤다. 되게 재미있었다. 추후에 좋은 기획이 있으면 또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대표님들에게 무척 고맙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힘이 된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사람들에게 작은 상영관, 단편영화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 일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꽤 있다. 다른 지역에 만들려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영화감상모임 ‘단데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극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지?

‘단데기’는 평소에 같이 보고 싶었던,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를 모아서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한다. 직장인이 많고 아직까진 없어지지 않고 잘 있다. 고정적인 모임은 아니다. 다른 이벤트는 아직이다. 올해 일 년은 무조건 좋은 단편 튜다는 생각 하나 밖에 없다.

추후 염두에 둔 큰 그림이 있다면?

멀리 보자면 좌석이 더 많은 공간. 많이 찾아와주시면 장소를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일 년 내로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편 독립영화를 상영해보고 싶다.

자체휴강시네마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체휴강시네마는 단편영화를 열심히 들고 있다.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많다니!’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오는 길은 불편하지만 불편한 곳은 결코 아니니 마음 편히 놀다, 쉬다 가시면 된다. 지하에 혼자 있으면 되게 심심하다. 대화로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면 더 좋고.(웃음) 망하기 전에 많이 불러 오세요!(웃음)

인터뷰 / 이은지

사진 / 유수진



내가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

필름다빈
백다빈 대표



“제가 하는 일이 예술의 한 분야였으면 좋겠어요.” 2017년 1월 김예은 배우전 등 성공적인 기획 상영을 통해 주목받는 배급사로 떠오른 필름다빈.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관객을 만나며 단편영화를 알리고 있다. 일은 괴롭지만 영화 때문에 불행한 적이 없다는 백다빈 대표의 말처럼, 영화를 대하는 그의 행동에는 애뜻함마저 묻어나온다.

1인 배급사이자 이제 막 걸음을 재촉하는 그에게 어려움은 없을까. 또 그에게 영화란 무엇일까. 어느 화창한 날, 배급사 대표라 불리는 것보다 영화하는 사람 혹은 영화인으로 불리는 게 더 좋다는 백다빈 대표와 만났다.

필름다빈은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독립, 단편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고 그냥 영화배급사라고 하고 싶다. 지금으로선 다른 배급사와 마찬가지로 영화제 출품도 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상영도 한다. 영화제 출품은 단편영화 만드는 감독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준비하되, 나 스스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건 상영회다. 단편영화는 장편영화와는 다르게 어떤 작품과 같이 상영되는지, 어떤 순서로 상영되는지, 어떤 공간에서 상영되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다고 상상하고 기획하는 편이다. 계속 실험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다.

영화배급사 앞에 독립이나 단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있나?

단어를 통해서 상업과 독립을 분리하려고 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분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 영화 각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처럼 상업영화, 독립영화 사이의 벽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단편영화 배급사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 단편만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밖의 주제를 얘기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기도 하다.

배급사 이름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자의식과잉 때문은 아니다.(웃음)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대다수가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큰 영화제 몇 군데 출품하고 만다. 내가 다닌 학교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학교 선배 중 하나가 소규모 영상제나 공모전에 부지런히 작품을 내더라. 그러다 그 선배가 어느 곳에서 상금도 받고 제작비를 회수하고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하게 됐다. 조금만 부지런히 신경을 쓰면 관객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음 영화 만들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아쉬웠다. ‘이런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 작품으로 시작하게 됐다. 그 때 배급사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그냥 내 이름을 넣자!’ 해서 장난처럼 ‘필름다빈’이 된 거다. 혹시 이 일을 길게 하게 되면 배급사 이름을 새로 지어야지 생각했는데 1, 2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름이 신선하니 계속 쓰라더라. 그렇게 자연스레 ‘필름다빈’이 정식 배급사 이름이 됐다.

영화 배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누자면 당연히 하나는 재정적인 것. 제일 힘들다. 그래도 다행히 학교 선배가 개인적인 후원을 해줘서 그걸로 배우전을 한다. 수익을 내기는커녕 계속 마이너스인데 채워주는 분이 있어 감사하게도 버티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심적인 거다. 물론 내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종종 영화계 안에서도 영화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너무 괴롭다. 학생이었을 때라면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는데

배급하는 입장이니까 작품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웃으며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럴 때 좀 속상하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

다른 배급사와는 어떤 차별성을 두려 하나.

내가 하는 일이 배급사의 업무로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배급작 감독들에게도 그냥 같이 영화하는 사람이자 동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예술의 한 분야였으면 한다. 기획전 하나하나가 소중한 창작품처럼 보이길 원한다. 세심함을 다루는 사람이고 싶다.

첫 배급작이 기억나나.

내 영화다. (웃음) 다른 사람 영화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이나경 감독의 <내마내모>가 아닌가 한다. 이나경 감독은 학교 후배인데 그 학번이 유독 재능이 넘쳐서 보고 기가 확 죽었더라.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나경 감독 영화가 좋아서 배급을 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 내 안목이 완전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다른 영화까지 배급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작품 배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나.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외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작품 자체가 취향에 맞는 거다. 내 취향에는 안 맞는데 영화제에서 잘 될 법하거나 공모전, 방송 쪽에서 선호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영화도 배제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데 마음이 가는 영화들이다. 배급을 맡으면 내 일만 늘어날 거란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몇몇 장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게 느껴질 때 결국 그 영화들을 책임지게 된다. 실제로 잘 안된 경우도 많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게 아마 다른 배급사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선 실격사유인데 영화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멈추기 힘든 선택 같다.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영화제에서만 반짝 상영되고 마는 것이 아쉬울 것 같다.

해외 영화제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출품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3년 이내다. 좋은 영화는 단편이든 장편이든 상관없이 계속 좋은 영화일 수밖에 없다. 장편영화는 50년, 100년이 되어도 볼 수 있는데 왜 단편은 그렇지 못할까. 내가 상영을 해보면 어떨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기획전을 시작했다. 기획전엔 내가 배급하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포함하려고 하는 편이다. 배급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상영 기획 자체를 겸하는 셈이다.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 기회가 되면 제작, 투자 다 하고 싶다. 나는 그저 나중에 나 이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 영화 이야기 나눌 때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이라서 힘들기는 한데, 영화 그 자체 때문에 괴롭거나 불행한 적은 없었다. 상업영화 현장 스태프나 규모가 큰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듣는 조언이 내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건데, 남한테 피해주거나 손 벌리는 게 아닌 이상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올 상반기부터 매달 배우전을 열어 지금까지 총 6명의 배우를 소개했다. 특별히 ‘필름다빈이 주목하는’이란 수식을 붙여 배우를 소개한 상징적 의미라도 있나.

필름다빈의 이름을 걸어서 자신감도 보여주고, 연속성이 있어보이게끔 하고 싶었다. 100회를 채우는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숫자가 쌓이면 신뢰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한편 배우전을 시작한 건 물론 그 배우들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종의 극약처방이었다. 장편도 안 보는 마당에 독립영화, 단편은 더 노출이 적다. 배우전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그 배우를 알지 못하더라도 ‘무슨 배우길래 배우전을 해?’하면서 단편을 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점차 단편영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7번째 프로젝트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은 이때쯤이면 배우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필름다빈의 기획을 좋아할 수 있겠다 싶은 타이밍에 준비한 거다. 어떻게 보면 배우전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영화 상영회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렇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팬으로 왔다가 이제는 고정 관객이 되어 익숙한 얼굴도 있다. 한 분 한 분 관객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아, 내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하는 느낌을 받는다. 신뢰를 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좋았던 기억은, 어느 상영회 때 감독이며 스태프, 배우 중 누구도 못 온 때가 있었다. 즉흥적으로 시네마토크를 진행해 봤다. 감독이나 배우가 없으니까 관객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 서로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섞여들었다. 상영회를 한 카페 주인 분도 그때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고 그러시더라. 이런 새로운 경험이 관객에게도 그렇지만 내게 새로운 효과가 아니었나 한다. 관객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 관객의 눈은 창작자나 기획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단편영화가 꾸준히 상영되니까 감독들이 좋아한다. 영화제만 마냥 바라보는 게 초조한 일인데, 다른 기회로 작품을 관객 앞에 내보일 수 있으니까.



이채은 배우전

9월 30일 오후 4시
/ KU시네마테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시대의 기분
월새와 보충금
거짓말
그들은 대화중

CINÉMA / EXHIBITION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

FILM DABIN x DEMISEMI

exhibition	films with GV	location
plastichipples	혜영_김용삼	행화당 서울 with DOMA
isjiniz	반차_최원명	이와미디어랩을조한
conihast	낙달_이현영	우계 천주
your.raanaa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_김동원	일시정지시네마 초현 8/2
sseogi	마음의 편지_고경주	커피코 서울
ayur.s	사사물결한 이야기_조은영	자혜휴강시네마 서울 8/1
ryuheejo		프로젝트064다방 8/2
graphicdrummer		
此夜		

FILM DABIN DEMISEMI



필름다빈이 지향하는 단편영화의 가치도출이라든지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가.

수치로 말할 순 없겠지만 천천히 되는 중인 것 같다. 정성일 평론가가 팟캐스트에서 한국영화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지지해야 할 것은 좋은 영화지, 한국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애초에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지켜야 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걸 보전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아니잖나. 한국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봐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국 영화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영화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편영화, 독립영화도 마찬가지다. 장르의 가치를 알지만 단편영화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독립영화여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사회적 메시지를 다룬다고 해서 꼭 훌륭한 영화라는 보장 또한 없다. 무조건적인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건 좋은 단편영화, 독립영화다.

상영회랑 연장선에 있는 질문이다. 단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의외로 공간이 적지도 않다. 카페나 술집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다. 공동체 산업 조합도 있고, 단지 그 바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건 추후에 ‘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국의 대안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모여 동시다발적으로 한 영화제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동네 카페에서든, 작은 상영 공간에서든 그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독립영화관은 계속 줄고 있고 자본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거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다.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 앞으로의 계획은?

1인 배급사를 하는 게 소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청년 창업 지원만으로는 다른 직원의 월급을 마련하기 어렵다. 최저 시급 이상을 줄 수 없다면 직원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너무 힘들다. 일단 영어가 안 된다. 해외에 출품은 할 수 있는데 되고 나서가 문제다. 프랑스 영화제에서 한 편을 상영하게 됐는데, 프랑스 스태프가 보낸 메일이 영어인 줄은 알겠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물론 나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해외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는 직원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월급을 줄 수 있지?’ 하다가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있다. 지금 후원해주는 바로 그 분에게. (웃음)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영화 틀어주고 술 달라하면 술 주고, 나는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다.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계획은 장편 제작이다. 재능 있는 감독의 시나리오로, 공적 지원도 함께 준비해서 장편을 제작하고 극장에 걸고 싶다. 연륜 있는 배급사들만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영화를 완성하고 몇 관이라도 걸어보는 게 목표다. 좋은 PD와 감독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 / 윤승현

단편영화 보기 좋은 날

단편영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 중인, 이번호 NOW의 인터뷰 이 네 사람에게 이들 마음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단편을 추천받았다.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가 기꺼이 이 추천작들의 관객이 되어 작품을 소개하기로 했다.

대단한 단편영화제 & KT&G 상상마당 시네마 **김신형 프로그래머 추천작** · 리뷰 **인디즈 추병진**



고통의 멜로드라마

조현철 <척추측만>(2010)

#출연: 조현철, 성다솜, 최아름

#길이: 17분

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36회 서울독립영화제 - 심사위원특별언급

제4회 시네마디지털서울

제13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척추측만>은 기이한 멜로드라마다. 이 멜로드라마의 전반에는 고통의 감각이 도사리고 있다. 주인공 국영은 아토피, 기관지확장증,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고, 그의 친구인 조현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현의 친구 만옥에게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국영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날 이후 국영은 조현을 의심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의 연락은 끊어지고 국영의 증상은 갈수록 심해져 간다. 외로움과 고통을 참다못한 국영은 마침내 조현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 영화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멜로드라마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조현철 감독은 국영과 조현이 겪는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이별의 고통마저도 시청각적 감각을 동원하여 묘사한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서사 바깥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고통의 감각들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소리에 선풍기가 작동하는 모습, 손에 붙잡힌 잠자리, 그리고 잠자리채에 걸린 얼굴 등의 이미지들이 한데 모이면서 국영과 조현이 겪는 괴로움은 더 부각된다.

이와 반대의 의미에서 인상적인 순간은,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오히려 카메라가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있다. 고통을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꾸밈없는 아름다움

한동혁 <서울누나>(2016)

#출연: 이윤횘, 김민규

#길이: 12분

제10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 KT&G 은관상

제18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서울누나>는 인물과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편안히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주의 깊게 보고 듣지 않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다. 서울에서 내려온 누나와 부산에 사는 동생이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들을 함께 보낸다. 이들간의 여행이 끝난 후 누나는 서울로 돌아가고 동생은 부산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영화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는다. 또한 분위기를 띄우는 배경음악이나 촬영과 편집의 기교도 보이지 않는다. 이 영화는 그저 담담하게 두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두 사람이 나누는 시간, 두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들을 보여주며 들려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소, 시간, 대화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영화가 다루고 싶어 하는 정서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발견되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나와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우리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다음 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본다면, 작품 전체에 깔린 일정한 리듬과 두 인물이 감추고 있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누나>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정서를 전달하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일상에서의 은밀한 관찰

최경준 <중고나라>(2013)

#출연: 김은선

#길이: 12분

제 7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 KT&G 은관상

제 3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 19회 인디포럼

<중고나라>는 현실과 픽션 사이의 미묘한 접점을 살린 영화다. 노랑진 고시생인 주인공은 직거래를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한다. 그녀는 아는 오빠를 만나 노트북을 선물하려고 하지만 선물은 곧바로 거절당하고 만다. 노트북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그녀는 다시 직거래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하게 된다. 직거래를 통해 얻은 돈을 ATM 기기에 입금하려고 하지만 5만원권 지폐 한 장은 끝내 입금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는 현실에서 종종 마주칠 만한 낯익은 순간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은 롱테이크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노트북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아는 오빠에게 노트북을 건네주고 다시 받을 때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느끼는 불편한 심정은 롱테이크의 긴 호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 이 영화에서는 롱테이크 장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러므로 관객은 그 장면과 장면 사이에 벌어졌을 법한 사건이나 대사를 상상해볼 수 있다. <중고나라>는 누구나 한번쯤 겪어볼 만한 일상의 불편한 순간들을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몰래 지켜본다는 은밀한 즐거움과 서글픔을 동시에 전달한다.

오렌지필름 민지연 대표 추천작 · 리뷰 인디즈 상호정



오렌 만남의 끝은 시작

이종필 <달세계여행>(2009)

#출연: 한예리, 최시형

#길이: 25분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

제 35회 서울독립영화제

제 4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공향을 쓸쓸히 걸어가던 여자는 잠시 길을 멈추고 묻는다. “어디에 있니?”,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가 답한다. “거기가 아니야, 밖으로 나와” 흑백의 영상에서 시작된 영화는 이윽고 세피아 모노톤으로 바뀌며 달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

남자는 달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야겠다는 명확한 믿음만은 갖고 있다. 그런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꺼이 같이 가겠다고 답하는 그녀.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함께 하고 싶다. 왜 그가 달에 가려고 했는지, 달이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 영화는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둘의 차분한 대화를 들려준다. 관객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오랜 연인이며 그 사이에 권태롭게 무거워진 지난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두 불빛이 불그스름한 허공에 쏘아 오르면 화면은 세피아 모노톤에서 다시금 전환되고 달로 떠나는 여행은 통통 튀는 효과음과 어우러져 푸르스름한 미지의 공간으로 끝난다. 달과 ‘이상(理想)’의 의미도, ‘사랑’과 ‘관계’의 의미도 불분명해지는 모호한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은 과연 달에 도착했을까?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였을까? 영화는 의문을 남기며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처음 그 순간, 선명하게 남았던 그들의 첫 기억으로 마무리된다. 다시 시작이다.



진솔하게 스며드는 그 시절

고형동 <9월이 지나면>(2013)

#출연: 임지연, 조현철, 윤희진

#길이: 24분

제 39회 서울독립영화제

제 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 관객상

제 11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 심사위원상

제 8회 런던한국영화제

제 16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 그 중 9월은 더운 여름의 열기가 가라앉는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더 차분한 계절이다. 영화 <9월이 지나면>은 영화의 제목이자 메인 OST이기도 한 그린데이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의 기타선율 위에 뜻밖의 승조의 목소리를 올려 승조와 지연의 이야기를 잔잔하고 진솔하게 풀어낸다.

푸르른 여름날, 같은 학교 건축과 선후배사이인 둘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설계도 제출을 앞두고 선영의 설계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늘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지연이 도둑으로 의심받는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승조는 지연에게 작업할 공간을 마련해주며 작업을 함께 하게 된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둘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해가는 둘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로가 스며든다. 승조가 대신 도둑 누명을 쓰게 되자 자백을 하는 선영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희망하는 작은 바람이 담겨있다.

서로가 힘들게 남겨질 수 있는 9월. 그 시간들 안에서 9월이 지나면 깨워달라는 말은 어느 미사여구보다 담담하고 깊게 남는다.



아물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다

강진아 <백년해로외전>(2009)

#출연: 이종필, 한예리, 최시형

#길이: 30분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제 36회 서울독립영화제

제 5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제 11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 심사위원 특별상

연기부문 / 사랑에관한짧은필름 최우수작품상

슬픔은 덮어두고 쉬워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다. ‘괜찮지?’라는 어설픈 위로는 상처 난 곳을 애써 포장지로 덮어둘 뿐이다. <백년해로외전>의 혁근이 그렇다. 듄직하고 목직한 외모와는 사뭇 다르게 여린 성격의 혁근은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연인 차경을 불시의 사고로 보내고 홀로 남아 상실감을 직면한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는 애써 덤덤한 척을 하며 오히려 남에게 화를 낸다. 혼란스러움과 죄책감 그 사이사이에서 그는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줄타기를 한다. 그 가운데 영화는 털털하고 밝은 모습의 차경이 인터뷰에 답하는 모습과 혁근과 차경이 대화하는 모습을 간간히 대비하여 보여준다. “나 때문에...” “왜 너 혼자 열심히 슬퍼하냐? 그냥 내 인생이 그런 거야.”

차경은 말한다. 바람에도 상처가 나는 목련이 한번 난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면 목련은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고. 홀로 남겨진 혁근의 소모적인 생각들과 울컥거림은 혁근이 차경을 떠올릴 때마다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차경과의 추억은 이제 더 이상 그녀와 그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만의 것이 되었고 차경의 죽음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혁근의 상처는 조금씩 씻기게 된다. 그렇게 영화는 독특한 전개와 살아있는 캐릭터를 통해 상실의 트라우마가 남아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을 덤덤하고 따사로이 어루만진다.

자체휴강시네마 박래경 대표 추천작 · 리뷰 인디즈 송희원



언세이프

문병곤 <세이프>(2013)

#출연: 이민지, 강태영

#길이: 13분

제 1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 66회 칸 국제 영화제 - 황금종려상

제 39회 서울독립영화제

제 37회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어느 허름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소가 있다. 환전소에 조그맣게 나 있는 창구 너머로 초조한 도박 중독자의 손가락이 보인다. 무표정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대담하게 상품권 몇 장을 빼돌린다. 가불받은 알바비를 갚아, 이 위험한 일을 하루빨리 그만두기 위해서다. 기계가 세어 넘기는 돈의 리듬에 맞춰, 빠르게 두드리는 손가락. 몇 번의 환전 끝에 도박 중독자는 알바가 자신의 돈을 빼돌린 것을 알아챈다. 이를 사장에게 항의해보지만 무시당하고 맞기까지 한다. 화가 난 그는 사장을 죽인 뒤 환전소 삼중의 잠금장치를 차례차례 부수며 알바를 위협한다. 제목 <세이프 Safe>는 ‘안전하다’와 ‘금고’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 돈이 보관된 견고하고도 안전한 금고. 반면 시급을 받아가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허름하고 부실한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해야 할 대상은 정작 사람이 아닌, 돈이다.

문병곤 감독은 반복적인 사운드를 통해 관객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극의 주요 배경인 환전소의 한 평 남짓 좁은 공간을 활용해 도박 중독자의 살의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위협감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다.



일곱 살 보리의 ‘콩나물 미션’

윤가는 <콩나물>(2013)

#출연: 김수안, 오동주, 김소진

#길이: 20분

제 18회 부산국제영화제 - 선제상 특별언급

제 39회 서울독립영화제

제 1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심사위원특별언급상

제 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 수정공상

제 10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 관객상/

대단한 배우상(김수안)

일곱 살 보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삿날. 보리는 제사상에 쓸 콩나물을 사러 집을 나선다. 콩나물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다.

“멀리 가지 말고 앞에서만 놀아”라는 엄마의 말을 뒤로한 채 신이 난 보리의 발걸음은 집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 아이는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소소한 이벤트에 눈을 반짝이며 다닌다. 낯선 사람은 피하기도하지만 동네 사람들 대부분과 함께 어울린다. 모르는 아이들 무리에 섞여 신나게 놀고, 동네 할머니를 도와 고추도 말리고, 어르신들의 평상 술자리에서는 공연까지 펼치며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가서는 선물도 받는다.

아이의 편견 없는 호기심과 순수함 때문일까. 보리를 초대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아이는 동네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하지만 들르는 곳이 늘어날 수록 보리의 ‘콩나물 미션’의 요원해진다. 문득 너무 멀리 나와 버렸다는 걸 안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누군가 말해준다. “아니야 잘 왔어요” 아이가 콩나물처럼 쑥쑥 잘 성장할 수 있는 건 그 걸을 지켜주는 마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별 후에 남겨진 것들

김용삼 <혜영>(2016)

#출연: 김용삼, 문혜인

#길이: 39분

제 18회 전주국제영화제 - 한국단편 감독상

제 16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제 18회 대구단편영화제

제 22회 인디포럼

혜영과 성우는 오래된 연인이다. 미술 교사인 혜영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공장에서 일하는 성우의 집에 잠시 머무른다. 서로 너무 편해서일까, 혜영은 남자친구 성우를 핀잔 주고 허물없이 대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오래된 이 연인에게에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영화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혜영, 성우”, “성우”, “찬다라, 성우”가 각 장의 제목이다. 2번째 장 제목에서 혜영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1장은 혜영과 성우가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린다. 2장은 이별 직후로 피폐해진 성우의 모습을, 3장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일상을 되찾은 성우와 그의 직장동료 찬다라의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성우는 혜영과 헤어진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괜찮아지는 듯 보이지만, 느닷없이 끌려 나오는 기억들에 시달린다. 이를테면 혜영과 함께 본 야구경기를 혼자 볼 때, 혜영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인근 교회의 찬송가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올 때 말이다.

분명 가까이에서 생생히 존재했던 연인이 이제는 다만 기억뿐인 과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성우는 자꾸 꿈을 꾸다. 꿈에서만은 헤어진 연인과 마주해, ‘만약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하는 가정을 현실인 양 재현할 수 있으니까. 영화 <혜영>은 이별을 경험해봤다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별 후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필름다빈 백다빈 대표 추천작 · 리뷰 인디즈 이지윤



폭력은 밖에서 안으로 스며든다

조성희 <남매의 집>(2009)

#출연: 박세종, 이다인

#길이: 43분

제 62회 칸영화제 - 시네파운데이션-3등

제 1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 - 최우수작품상

제 35회 서울독립영화제 - 우수작품상/

열혈스태프상

제 10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 대상/

절대악몽 최우수작품상/미장센 미술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탓에 잔뜩 그늘진 집이 있다. 벽지엔 낙서가 가득하고, 가구에는 여기저기 때가 끼었다. 어둡고 음습한 반지하에 어린 남매가 산다. 집 안 어디에서도 보호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남매는 꽤 오랫동안 단 둘이서 생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남매의 집에 어느 날 세 명의 침입자들이 들어선다.

기괴한 모습을 한 침입자들은 꽤나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남매가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다. 침입자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안을 안은 채, 어린 남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자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품 속에선 성인의 육체를 가진 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작고 약한 동물에게도 폭력이 가해진다. 이때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은 폭력을 통해 느껴지는 기시감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낯이 익다. 현실 세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안전하다 믿었던 집 안에서 남매는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바깥의 폭력은 집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고, 구석 구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마지막에 여동생 손이는 오빠 철수에게 언제쯤 다시 유치원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본다. 철수의 대답에 기계음이 덧입혀진다. 철수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남매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 밖에 도사리고 있을 무언가를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매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무심(無心)이란 칼날로

유원상 <910712 회정>(2010)

#출연: 손민지

#길이: 17분

제 9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제 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제 11회 장애인영화제 - 은상

제 8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 소비코상

제 15회 인디포럼

한 소녀가 동사무소에 들어선다. 소녀는 한참동안 그 안을 서성인다. 무슨 일로 왔냐는 물음에도 쭈뼛거리며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소녀는 시간이 꽤 흐른 후에야 동사무소 직원에게 다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왔다고 말한다. 학생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주소를 받아 적은 후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소녀는 직원에게 손을 다쳤다고 말한다. 소녀는 다친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사무소의 직원은 계속 소녀에게 손을 보여 달라고 재촉한다. 그런 소녀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린다.

소녀에게 다친 왼손은 감추고 싶은 상처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드러내야 했다.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에 대한 배려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손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소녀를 재촉한다. 다친 소녀의 손을 본 이후, 직원들은 계속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다. 업무가 넘겨질 때마다 소녀는 자신의 다친 손을 꺼내 보여야 했다. 소녀는 자신의 상처를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강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상처받은 소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든다. 그러나 직원들은 소녀가 받은 상처에 무심하다. 무례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무감정의 말투. 이해, 배려의 부재. 그 속에서 소녀는 한없이 작아진다.

도망치듯 뛰쳐나온 소녀는 잉크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까만 잉크가 얼굴에 묻어난다. 그 얼룩은 무지와 무심함이 만들어낸 상처를 닮았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감히 그 눈물을 닦아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별 후에 남겨진 것들

김용삼 <혜영>(2016)

(백다빈 대표의 추천 단편영화 중 <혜영>의 리뷰는 23페이지에 수록합니다.)

단편영화 온라인 다운로드 & 스트리밍 사이트

단편영화를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창구를 소개한다.

인디플러그

— www.indieplug.net

독립영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배급사 ‘인디플러그’에서 2010년 시작한 독립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다양한 장, 단편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서비스한다. 영화제 역대 상영작, 감독별/주제별 단편 패키지들도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 인디극장

— tv.naver.com/indiecinema

2014년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고 네이버가 지원해온 월간 인디극장은 새로운 테마로 엮인 단편영화를 격월로 두 작품씩 소개하고 있다. 배우전, 감독전을 비롯하여 재기발랄한 단편영화가 두 달 동안 상영된다.



애니씨어터

— tv.naver.com/anitheater

2014년부터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가 한국독립단편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창구.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독립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영한다. 독립애니메이션 전문배급사 씨앗(AniSEED)의 작품, 인디애니페스트 상영작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단편영화 소통의 장 yoUeFO

— youefo.com

유에포(yoUeFO)는 관객과 단편영화의 소통 및 단편영화에 대한 주제를 목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영을 원하는 제작자가 직접 작품 업로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감독/배우들의 초창기 단편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씨네허브

— www.cinehubkorea.com

영화 및 미디어 관련 전공자들이 모여 구성한 단편영화를 위한 플랫폼. 단편영화 쇼케이스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영화인 및 관객의 소통을 도모한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단편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른 영화 말고 너 임대형, <만일의 세계>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립영화와 맞닿아 있는 활동가들에게
‘단 한 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로는 그리운 첫사랑이,
때로는 특별한 추억이,
때로는 다정한 조연이 된
사적인 독립영화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오래된 연인 만일과 주희는 모처럼 일몰을 구경하기 위해 동산에 오른다.
그런데, 어쩐지 심상치 않은 주변의 분위기. 주희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만일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출연: 배유람, 박주희

#길이: 20분

제 40회 서울독립영화제 - 우수작품상

제 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 심사위원특별상/ 심사위원특별상 연기부문 (박주희)

제 19회 인디포럼

만일이라는 비극적 결함

가정이 없는 세계에서 나는 행복하다.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없고, 그리운 사람이 없다. 거짓이 되어버린 다시 보자는 말을 어물쩍 삼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부를 일 없는 이름을 입속에서 나지막이 굴러보는 일도 없다.

‘만일....’

영화 <만일의 세계>는 가정하며 시작한다. 일몰을 보며 만일과 주희는 대화를 나눈다. 할 말이 있다는 주희의 말끝을 재빨리 훑쳐서 만일은 지고 있는 해가 사실은 구멍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그 구멍 안에는 다른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말이다. 만일은 오래전부터 주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어떤 확신도 줄 수 없는 만일은 모든 말에 말줄임표가 붙는다. 주희는 그게 지겹다. 헤어지자는 말로 시작하는 이별은 없다. 그들은 같이 있지만, 따로 걷고, 각자 이야기한다. 만일과 주희는 산책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조금 늦춘다.

둘은 건다가 엉망진창 춤을 추는 동네 형을 만난다. 그리고 그 형은 만일에게 이 세계의 비밀에 대해 누설한다. 여기서는 춤이 위험한 것이어서 금지되어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춤을 춘다는 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걸 만일에게 들려준다. 만일은 일몰의 풍경에서 춤을 춘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 작위적이지만, 격정적으로 몸을 흔든다. 정말 해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구멍인지, 동네 형이 만일에게 춤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는지, 춤이 금지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이곳은 ‘만일의 세계’이고 나는 마지막 장면을 오래 품고 있다.

글을 오래 미뤘다. 다시 그 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인지 모르고 해맑게 이별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들을 버거울 만큼 잔뜩 챙긴 지독한 끝이 생각날 거 같았다. 한참을 미루다가 영화를 봤다. 2014년 서울 독립영화제 이후 처음이었다.

영화에는 내가 잊고 있던 장면들이 있었고, 알고 있던 순서가 조금 달랐다. 나와 닮은 ‘만일’이 좋았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주 작아지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첫 영화제 자원활동을 했던 그 겨울을 생각나게 했다. 영화를 보고 꼭 임대형 감독을 만나고 싶었다. 긴장해서 손을 떨면서 임대형 감독과 인터뷰를 했다. 나와 ‘만일’이 많이 닮았다고 말했고, 그런 거 같다는 답을 들었다. 멍청하고 멋진 처음이었다. 덕분에 이후에도 오래 좋아할 영화를 만나기 바라며 영화관에 갔고, 각자의 영화와 같이 앉아있던 영화관에 대해 나눌 친구들도 생겼다.

나는 가정하며 살아간다. 그 시절 내가 좀 더 걱정적인 춤을 쳤다면 그리운 얼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웅얼거리며 뒷말을 잘근거리지 않았다면 매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 가정해본다. 가끔은 시절이 지나 헤어진 일들이 모두 다 내 책임인 거 같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몰래 용서를 구한다.

가정하지 않으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두고 온 것들을 자주 생각한다. 만일처럼 잘못 빨리 들어온 세계에서 오갈 곳 없이 무국적자가 된 기분이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반대편 세계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눈이 붙어지고, 눈물이 흐를 때까지 해를 바라보는 일과 마지막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다. 나는 되돌리고 싶은 시절이 있고, 사무치는 얼굴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만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글 / 김민범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단편영화를 위한 단편영화

영화를 사랑해서 극장에 출몰하는

미지의 생명체 '토끼리'.

NOW에서는 매 호 토끼리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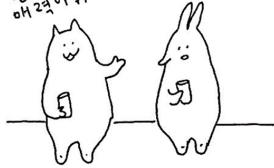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립영화와 만납니다.

토끼리 손을 잡고 극장이라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편영화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GV라도 있는 날에는 ..



여러분
단편 섹션 1의
감독님 겸 출연진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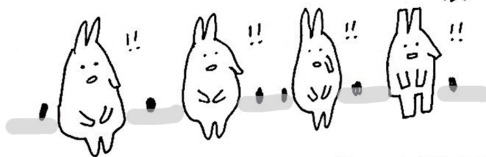
엄청 굉장한 게스트를 한순간에 만날 수 있다!



장편 영화를 볼 때는 집중력을 잃기 쉬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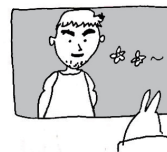


단편 영화는 끊임없이 긴장의 연속이야..!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니까..)

후날 천만 명에서
만나면 무척 반갑다.



...어디
왔던 배우인데..



앗! 그대!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W창에 접속해서 4~5개의 영화에
한번에 별점을 매길 수도 있다.



아니 하중에
평점을 두게 나오다니!!



정말 영화
열심히 봤다!

???





독립영화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더 북 소사이어티
미디액트
상수동까페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아디스아바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카페 공드리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강원

강릉 물고기이발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속초 동아서점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데크)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거핀
순천 책방심다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안동 중앙극장
오곡극장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국도예술관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즘



NOW NO.14 2017.10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송요, 김지은, 이도훈, 이은지, 이채현

담당 김송요

진행 김지은, 이채현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전화 02-362-9513 /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siff@siff.kr

홈페이지 siff.kr / indienow.kr